

# 번역본 『화산도』의 판본 비교연구

## 4·3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장은애

### 1. 들어가며 : 4·3의 '재현' 과 '서사화'

『화산도』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소설의 4·3 재현 및 형상화에 집중하고 4·3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심해 왔다.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받지 못한 것들이 잉여로 취급되며 타자화 되고, 선택된 것만이 대표성을 획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라는 개념은 역사를 언표함에 있어 대안적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행기 정의는 민주화로의 이행과 그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을 핵심과제로 하는 개념으로, 지구적 차원의 민주화 흐름과 함께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동태적 개념이며, 최근에는 “진실·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거청산의 새로운 유형 및 정의의 대체 개념”이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행기 정의는 역사를 고정된 것이 아닌 유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역량에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기 정의를 경유해 텍스트를 독해하려는 시도는 사회성원의 민주화 의지와 문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문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한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살펴보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하여 『화산도』의 두 번역 텍스트가 각각 역사의 특정한 시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8년판 『火山島』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 광주항쟁을 통한 민주화 열망의 폭발과 독재에 대한 저항, 독재정권을 합리화했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폭로라는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2015년판 『화산도』는 2003년 4·3 특별법 제정,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시민운리의 각성, 2017년 박근혜 정권 탄핵과 광장의 촛불혁명 등과 겹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화산도』는 시대와 교호(交互) 속에서 때로는 저항과 항쟁의 텍스트로 때로는 평화와 혁명의 텍스트로 독해되었다.

한편 이재승은 이행기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덧붙여 그것에 바흐친의 서사 방법론인 ‘크로노토프 (chronotope)’의 접목을 시도한다. 그는 크로노토프를 “작가에게 모든 사태들을 연결지어 작품의 형상을 갖추게 하는 신경망과 같은 것인데, 이 개념은 과거청산의 법과 운동을 해명하는데에도 유용”한 개념이라고 이해한다.

크로노토프란 러시아어로 시공간(視空間)을 의미하는데, 바흐친은 이것을 “문학

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작품과 세계 그리고 작가와 작품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 크로노토프에 의해 구현된 세계는 “실제 세계의 일부가 되어 그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며, 한편 실제 세계는 작품이 창조되는 과정의 일부로서, 그리고 그 결과 작품이 지니게 된 생명의 일부로서 청중과 독자의 창조적 인식을 통해 작품을 끊임없이 쇄신하면서 작품과 그 작품 속의 세계로 침투”한다. 서사와 현실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와 같은 크로노토프적 교환 과정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적 세계 속에서 발생하며 변화하는 역사적 공간과의 접촉을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종합하면 크로노토프는 현실세계와 서사를 ‘대화’적 관계로 재구성하는 개념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이미 서사화 된 대상인 역사와 변하고 있는 세계와의 연결을 유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이행기 정의를 도출하는 방법론으로서 ‘대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시민·대중의 연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이행기 정의는 개념상의 정의(definition)로부터 암시되어 있듯이 참여자의 수행성을 전제한다.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성원들의 의지는 하나에 사건을 특정 사태에 국한하여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서 여러 국지적 사건들을 매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나아가 역사를 이행기 정의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재구성한다. 이행기 정의와 크

로노토프의 접목이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해석에 대한 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화적 상황이며, 이로부터 창출되는 생생한 역사의 의미화 과정이다.

이러한 이해를 『화산도』의 두 번역 판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두 텍스트를 크로노토프적 방법으로 독해하는 것이란 각 텍스트가 자리한 여러 시공간을 포개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시간에 고정되어 있는 각각의 텍스트가 ‘대화’를 통해 지정된 물리적 시간성으로부터 벗어나 ‘역사’라는 직선적 시간관념을 교란하고 새롭게 창출된 ‘대화적’ 시간 속에서 전위(前衛)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두 텍스트는 1980년대와 2000년대라는 서로 다른 시기의 정치적 파토스 속에서 번역되었으며, 텍스트의 의미 또한 각각의 정치적 자장 안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서사의 내재적 측면에서 이행기 정의가 무엇으로 달성되었는가라는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나아가 미래의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두 문제 모두 문학과 현실의 상호 침투성에 대한 고찰 속에서 전자는 텍스트 해석의 영역을, 후자는 의미생성의 영역을 문제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각각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역사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현재성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

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이호철 · 김석희 번역으로 실천문학사에서 간행한 『火山島』(1988)와 김학동 · 김환기 번역으로 보고사에서 간행한 『화산도』(2015)이다. 현재까지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두 텍스트를 함께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두 텍스트를 함께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시도가 되리라 기대한다.

## 2. ‘부름’ 과 ‘응답’ 으로서의 『화산도』 수용

『화산도』는 특정한 시대적 상황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수용되어 왔다. 특히 『火山島』(1988)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 추구라는 역사적 사명과 공명하며 그 의미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정황은 『火山島』(1988)의 작가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까마귀의 죽음』이나 『화산도』 등의 ‘제주도 4·3사건’을 다룬 소설들이 우리말로 옮겨져 널리 읽히게 되리라곤 일찍이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졸작이 조국에서 번역소개되어 몇몇이 햇빛을 보게 된 뜻밖의 현상은, 실은 그것이 뜻밖의 일이 아니라 민주화예로의 벽찬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시대적 제약성을 두려워함이 없이 뿌리치고 나아간 출판 관계 여러분의 열성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火山島』 제1권, 1988. 2쪽)

김석범은 『火山島』(1988)가 한국에 소개될 수 있었던 배경을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한다. 또한 작가는 『火山島』(1988)번역을 부정적인 시대적 제약성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일종의 실천적 저항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김석범은 “아물든 일어로 씌어진 이 작품이 우리말로 옮겨진 이제, 그것이 한국의 민족·민중문학의 큰 흐름 가운데에 한가닥 물줄기가 되어 합류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히는데, 이를 통해 작가가 『火山島』(1988)의 한국 소개를 민족·민중문학의 지평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80년대 민주화 항쟁 속에서 민주적 가치실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던 시대적 분위기와 그 가운데 민중적 의지로서 호명되었던 4·3의 위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석범 또한 이와 관련된 인식을 여러 지면을 통해 드러낸다.

4·3사건을 이 나라의 역사에 정착시키려면 아직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1980년 5월 광주학살 이래, 드디어 반미(反美) 기운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해방 직후 남조선에 있어서 미국 제국주의의 본질이 다시금 조명될 날이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 (『火山島』 제5권, 1988, 318-319쪽)

그래서 결국 4·3사건이 일어났어. 이걸 나에게 묻는다면 ‘의거’ 일세. 88년 11월에 한국에 40몇 년 만에 왔는데 그 때 나는 “4·3은 ‘폭동’ 이

아니라 ‘민족해방투쟁’ 이다” 라고 말하며 다녔어. 의거이며 모험주의였다.(강조는 인용자) (김석범 · 김시중,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2007, 150 쪽)

눈에 띄는 부분은 반미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4·3을 호명하고 있다는 점과 80년대 광주 민주화 항쟁의 연장선상에서 4·3을 사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발언들을 통해 작가 또한 반미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 통일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등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공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4·3을 반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열망을 매개하는 연결고리로 파악하고 나아가 두 인식이 겹치는 자장 속에서 분단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호출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석범은 『화산도』가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텍스트로만 그 의미가 한정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에 따라 과거 『火山島』(1988)의 임의적인 개작에 대해 『화산도』(2015)의 서문에서 유감을 표한다.

그런데 1988년 출판된 제1부 한국어판 『화산도』는 내용상(당시 일본에 있는 저자와 출판사 측의 연락이 자유롭지 못했던 탓) 불충분한 것들이 적지 않다. 하나는 번역본이 원작과는 달리 일기체 형식으로 꾸며졌고, 작중의 중요한 대목들이 군데군데 생략되면서, 그 후에 완결된 『화산도』 제2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데 지장을 주게 된다.

대체로 작품 내용에 대한 비평도 정치적·교조적인 해석이 대부분이다. 한 예를 들면 작품 전체의 중심축이 되는 주인공 이방근을 ‘반혁명적인’ 인물로 몰아치는 바람에 전체적인 작품 이해에 상당한 괴리를 가져왔는데, 이런 점은 원작자로서 아쉬운 점이였다. [중략] 대체로 당시의 『화산도』 평은, 나로 하여금 한국문학계에 『화산도』에 대한 문학적 수용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도록 한 게 사실이다. 최근에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화산도』를 논한 김재용 씨의 평이 나오게 됨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정치·교조적인 편향이 상당히 시정되고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강조는 인용자) (『화산도』 제1권, 2015, 5-6 쪽)

작가는 1988년판의 임의적인 개작을 지적하고, 텍스트가 정치적·교조적인 맥락으로 해석되어 온 것을 비판한다. 나아가 작가는 정치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를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그가 새롭게 제시하는 의제는 ‘평화’, ‘보편’, ‘혁명’이다. 이러한 전환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담화 및 진상조사 보고서 발행을 기점으로 변화한 4·3 인식의 새로운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경향은 인류 보편으로서 ‘평화’의 강조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화산도』(2015) 또한 ‘평화’에 응답하는 텍스트로서 적극적으로 재호명 된다.

한편 4·3을 재발견함에 있어 또 다른 키워드는 ‘혁명’이다. 4·3을 혁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새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들어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로서의 ‘혁명’이 아닌 보다 유동적이고 폭넓은 의미로서의 ‘혁명’이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현실적 차원에서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현실의 패배를 부활의 가능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복적 상상력의 소산이자 그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혁명이다. 이러한 해석의 전환은 최근 우리가 지나온 몇몇 의미 있는 경험과 나란히 포개어 볼 때 의미나 형태가 한결 선명해진다.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정의실현의 욕구,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 공동체 성원으로서 시민적 윤리의식 각성, 그리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사회성원의 심판이었던 2017년 촛불집회는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혁명에 대한 상상력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4·3을 과거의 실패한 혁명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잇는, 도래할 혁명으로 독해할 역량을 함양한 것이다.

한편 두 텍스트가 점유한 각각의 시간대는 독립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각각의 시간대는 단면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선적으로 연속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시간대는 『화산도』를 매개로 교차한다. 4·3을 둘러싼 시공간은 인과율로 연결된 직선적 역사가 아닌, 4·3을 교차하는 여러 인식이 서로 경합하고 교섭하는 가운데 형성된 복합적 시공간이다. 하나하나의 시간대는 자신을 대표하는 고

유한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화산도』라는 텍스트의 총체적인 의미작용에도 관여한다. 이것은 일종의 대화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헤테로토피아적인 시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으로부터 『화산도』의 다양한 의미화 작용이 발현된다. 나아가 이러한 시공간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라는 직선적인 타임라인에 투입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이행기 정의의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화산도』는 부름에 대한 응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

### 3. 형식의 크로노토프: ‘정명’에서 ‘혁명’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번역된 번역 텍스트의 구성 및 내용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결과 및 효과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각각의 번역본이 반영하고 있는 시대의 단면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나아가 각 시대별 정치적 요구에 따라 텍스트 상에 발현되는 특징과 그것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두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은 작품을 매개로 전개되는 담론의 계보학적 흔적을 탐색하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3의 역사가 혁명으로서 의미화하는 과정에 천착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두 텍스트의 형식 및 구성적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화산도』 텍스트를 비교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완역인 『화산도』(2015)에 비해 『火山島』(1988)가 전체 2부로 구성된 『화산도』의 텍스트 중 제1부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

는 1부의 번역 시점인 1988년 당시, 아직 일본에서 『화산도』 제2부 집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내용상의 차이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형식상의 차이이다. 『화산도』(2015)가 원본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장치 없이 단순히 숫자로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에 비해 『火山島』(1988)는 소설의 각 장절을 날짜 및 시간대 별로 구분하여 일지형식으로 가공한다. 이는 원작에는 없었던 부분으로 『火山島』(1988)에서만 나타나는 가필이다.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주로 두 번째 경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첫 번째 차이를 제외하고 두 번째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차이의 원인과 차이가 야기하는 효과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화산도』라는 텍스트가 이행기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화산도』(2015) 제1부는 서장과 12장의 개별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다시 소설로 구분된다. 반면 『火山島』(1988)의 장절 구분은 『화산도』(2015)와 대체로 동일하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소설에 세부적인 일시를 덧붙여 일지 형식으로 가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1부의 마지막 부분인 11, 12장에서 절 하나를 전부 생략하거나 절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 또한 『火山島』(1988)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먼저 『화산도』 제1부에 한하여 『火山島』

(1988) 장절 구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火山島』(1988)은 각각의 절에 날짜나 구체적인 시간대를 기재하여 세세하게 시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사의 촘촘한 타임라인이 부각된다. 이에 비해 『화산도』(2015)의 장절 구분은 단순히 절을 숫자로 표기하는 정도로 『火山島』(1988)에 비해 매우 단순하며,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火山島』(1988)의 이러한 서사적 장치는 특정한 효과를 수반하여 텍스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화산도』는 『화산도』(2015)를 기준으로 1·2부를 합해 200자 원고지 2만 2천여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인데, 이러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전개되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으며 소설의 서사적 시간은 2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이처럼 분량에 비해 사건이 적기 때문에 『화산도』의 서사시간은 느리고 촘촘하게 흘러가며 서술의 밀도 또한 매우 높다. 밀도 높은 서술은 인물의 심리묘사, 의식전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분석, 사태에 대한 배경 제시 등에 할애된다. 이처럼 서술적 측면에서 시간 경과의 원인인 사건 진행에 비해 앞서 언급한 요소들에 할애되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화산도』의 서사적 특징이다.

이처럼 촘촘하게 조직된 서사시간은 사건의 진행이 많지 않은 반면, 어떤 어떠한 상태에 오래 머무르며 특정 사태나 국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및 인식을 가능하게 요인으로 작용한다. 『화산도』에서 4·3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이 부각될 수 있는 것도 이

## 제 1 부 서장

제 1 장 1948.2.26.	제 1 절 :1948.2.26./ 제 2 절 :1948.2.26. 정오무렵 / 제 3 절 :1948.2.26. 오후 / 제 4 절 :1948.2.26. 저녁 / 제 5 절 :1948.2.26. 밤
제 2 장 1948.2.27.~3.1.	제 1 절 :1948.2.27./ 제 2 절 :1948.2.27. 오후 / 제 3 절 :1948.2.27. 밤 ~28. 오전 / 제 4 절 :1948.2.28. 정오 무렵 / 제 5 절 :1948.2.28. 오후 / 제 6 절 :1948.2.29./ 제 7 절 :1948.3.1.
제 3 장 1948.2.26.~3.4 오후	제 1 절 :1948.3.2./ 제 2 절 :1948.3.2. 저녁 / 제 3 절 :1948.3.2. 밤 / 제 4 절 :1948.3.3./ 제 5 절 :1948.3.3. 저녁 / 제 6 절 :1948.3.3. 밤 ~4. 오전 / 제 7 절 :1948.3.4. 정오무렵
제 4 장 1948.3.4. 오후 ~3.5.	제 1 절 :1948.3.4. 오후/제 2 절 :1948.3.4. 저녁/제 3 절 :1948.3.4. 밤/제 4 절 :1948.3.4. 밤/제 5 절 :1948.3.5.
제 5 장 1948.3.5. 저녁 ~3.13.	제 1 절 :1948.3.5. 저녁 / 제 2 절 :1948.3.6.~7./ 제 3 절 :1948.3.8./ 제 4 절 :1948.3.9./ 제 5 절 :1948.3.10./ 제 6 절 :1948.3.11./ 제 7 절 :1948.3.11. 저녁 ~12./ 제 8 절 :1948.3.13.
제 6 장 1948.3.15. 밤 ~3.25.	제 1 절 :1948.3.15. 밤 ~16. 정오무렵 / 제 2 절 :1948.3.16. 오후 ~18. 오후 / 제 3 절 :1948.3.18. 저녁 / 제 4 절 :1948.3.18. 밤 ~20. 정오무렵 / 제 5 절 :1948.3.20. 오후 / 제 6 절 :1948.3.21. 오전 / 제 7 절 :1948.3.21. 오후 / 제 8 절 :1948.3.21. 밤 ~25.
제 7 장 1948.3.25. 오후 ~3.28.	제 1 절 :1948.3.25. 오후 / 제 2 절 :1948.3.25. 저녁 / 제 3 절 :1948.3.26. 오후 / 제 4 절 :1948.3.26. 저녁 / 제 5 절 :1948.3.27. 정오무렵 / 제 6 절 :1948.3.27. 저녁 / 제 7 절 : 제 8 절 :1948.3.28.
제 8 장 1948.3.29.~4.1	제 1 절 :1948.3.29./ 제 2 절 :1948.3.30./ 제 3 절 :1948.3.31./ 제 4 절 :1948.3.31. 오후 / 제 5 절 :1948.4.1. 오후 / 제 6 절 :1948.4.1. 저녁
제 9 장 1948.4.2.~4.3.	제 1 절 :1948.4.2. 오전 / 제 2 절 :1948.4.2. 정오무렵 / 제 3 절 :1948.4.2. 오후 / 제 4 절 :1948.4.2. 밤 ~3. 새벽 2 시 * / 제 5 절 :1948.4.3. 오전 / 제 6 절 :1948.4.3. 오후
제 10 장 1948.4.4.~4.5.	제 1 절 :1948.4.4. 오전 / 제 2 절 :1948.4.4. 오후 / 제 3 절 :1948.4.4. 오후 / 제 4 절 :1948.4.4. 밤 ~5. 오전 / 제 5 절 :1948.5.4. 오후 / 제 6 절 :1948.4.5. 저녁
제 11 장 1948.4.6.~4.14.	제 1 절 :1948.4.6.~8./ 제 2 절 :1948.4.11.~12./ 제 3 절 :1948.4.13.~14.
제 12 장 1948.4.20.~1948.5·10 총선 전야	제 1 절 :1948.4.20./ 제 2 절 :1948.4.22./ 제 3 절 :1948.4.23./ 제 4 절 :1948.4.24./ 제 5 절 :1948.4.25.~26./ 제 6 절 :1948.5·10 총선전야 *

러한 형식상의 특징 때문이다. 이렇듯 밀도 높은 시간은 『화산도』의 주제 형상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火山島』(1988)은 이처럼 경계 없이 완곡하게 흘러가는 서사를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분절한다. 이는 절을 구분하기는 해도 숫자로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장치를 하지 않은 『화산도』(2015)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화산도』(2015)는 전반적으로 사태를 인식하는 주인공 이방근의 의식을 따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火山島』(1988)은 날짜와 시간으로 절을 구분하여 소설을 ‘일지 형식’으로 가공한다. 이러한 일지 형태로의 가공은 작품의 의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절이 시작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는 이러한 일지 형태의 가공은 『火山島』(1988)가 픽션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기록물인 듯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서사의 사실성과 진실성이 부각되고 나아가 4·3에 실재사건으로서의 권위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서사적 장

치는 4·3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몰입감을 고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의 한계는 자연스러운 서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고 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의식의 흐름을 경계 짓는다는 데 있다. 그 결과 ‘혁명’을 둘러싸고 오가는 의식들의 자유로운 대화적 에너지와 가능성이 약화된다.

『화산도』(2015)와 『火山島』(1988)의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이 논문의 2장에서 언급했듯이 『火山島』(1988)가 번역되어 소개될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역자와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4·3을 둘러싼 복잡한 사태를 폭넓게 고려하기보다 이것들을 하나의 축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火山島』(1988)의 특징은 역자의 정치적 동기에 호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火山島』(1988)의 역자는 『소시민』의 작가 이호철과 제주도 출신의 번역가 김석희이다. 이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이호철이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인민군에 징집되어 6·25에 참전했다가 국군 포로 생활을 거쳐 남한에 정착한 이호철은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남한의 반공적 분위기 속에서 사상적 / 진영적 진위를 끊임없이 의심 받는다. 이처럼 남북한 양 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 작가이자 실향민이며 경계인인 이호철의 작품 세계는 특정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속에서 ‘민족’의 ‘통일된 조국’을 지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역자의 이러한 인식은 김석범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김석범은 조선적(朝鮮籍)을 유지하는 까닭에 관해 “나에게는 ‘북’도 ‘남’도 조국이 아니야. 따라서 ‘북’의 국적도 ‘남’의 국적도 취득하지 않아. 통일조국이 나의 조국이지.”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4·3과 분단을 야기한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국가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통일된 조국을 지향한다는 감각은 김석범과 이호철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火山島』(1988)의 서사적 구성이 특별히 부각하는 4·3과 5·10 남한 단독선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4·3은 조국의 분단을 막을 수 있었던 혁명적 의거(義舉)였던 반면, 5·10 남한 단독선거는 조국 통일의 희망을 앗아간 부정적 사건이다. 4·3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사건의 올바른 이름을 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욕망과 통한다. 그 결과 4·3은 ‘혁명’으로서 호명되었지만 그것은 4·3을 정의하고자 하는 ‘정명’이었지 진정한 의미의 ‘혁명’은 아니었다. 사태에 대한 정의가 있었을 뿐, ‘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4. 괄호의(무)의식: 생략의 역설과 크로노토프

『火山島』(1988)의 서사는 사실관계 중심의 서술과 사건의 진행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이로 인해 사건 및 인물 등에 대한 부분적인 생략이나 삭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생략은 내용상으로 4·3 발발 이후이며 분량상 소설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제 11장과 제 12장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내



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요 인물과 에피소드의 생략이 눈에 띄며, 심리묘사나 의식의 전개, 상황전달이나 단순서술 등 사건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의 생략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이 장에서는 『화산도』의 핵심 테마인 혁명과 관련 있는 주요 에피소드의 생략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부재를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서사의 (무)의식이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략이 『화산도』의 4·3이라는 중심서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火山島』(1988)의 사라진 장면들은 서사의 표층에 가려진 (무)의식을 외부로 돌출시킨다. 이러한 내용과 장면의 생략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우편국 사건’이라고 불리는, 청년 게릴라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실패하게 된 투쟁사건이다. 우편국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0 단선을 반대하며 우편국에 뼈라를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는데, 계획에 실패하는 바람에 작전에 참여한 게릴라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나머지는 도주하여 은신하다가 이방근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밀항한다.

『화산도』(2015)에서 우편국 사건은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사건을 둘러싼 주변상황 등이 여러 차례 걸쳐 언급되며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火山島』(1988)에서는 이 우편국 장면과 관련된 서술이 전부 생략되어 있다. 이것의 원인으로 운동의 도덕성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게릴라의 ‘밀항’에 대한

터부가 작동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것과 유사한 정황으로 인해 삭제된 또 다른 장면은 이방근의 서울 행적과 관련 있다.

『화산도』의 서사는 ‘제주 4·3’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주와 4·3 이외의 것들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화산도』는 주변적인 것들을 묘사함으로써 4·3에 대한 이해를 한층 풍부하게 한다. 특히 서울의 정치·사회·문화적 풍경은 4·3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4·3을 입체적으로 부조(浮彫)한다. 그러나 『火山島』(1988)에서는 이방근의 서울 행적이 축소된다. 그로 인해 4·3을 둘러싼 풍부한 정치·사회적인 함의들이 유실되고 결과적으로 4·3이 입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한다.

4·28 평화회담 결렬과 같은 4·3의 파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둔 서울의 분위기를 고려해야지만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문제적인 장면은 이방근과 그의 여동생 이유원, 그리고 이유원의 친구 조영하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다.

[1988]

네온이 번쩍이고 있는 길가에는 각종의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들 셋은 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제법 넓은 식당이었다. 그들은 입구 근처의 빈자리를 잡고, 벽쪽으로 이방근이 앉고, 그 맞은편에 이유원과 조영하가 나란히 앉았다. 전골냄비와 생선회를 주문하고, 이방근은 청주를, 그리고 이유원과 조영하는 맥주를 마셨다. (『火山

島』 제 5 권 , 1988, 201 쪽 )

[2015]

그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에 중화요리점과 양식 레스토랑 등의 많은 음식점이 늘어서 있었지만, 세 사람은 어느 조선요리점에 들어갔다. 그곳은 불고기를 주로 하는 일반적인 조선요리점과는 달리, 일본의 전골풍을 도입한 냄비요리를 하고 있었다.

꽤 넓은 가게의 1 층은 입구에서 절반이 테이블을 놓은 마루였고, 안쪽은 전에 다다미방이었던 것을 융단을 깔고 탁자를 몇 개 놓고 있었다. 그 한편 벽쪽에 일본의 이로리(囲炉裏) 식으로 바닥을 직사각형으로 파고 긴 테이블을 놓은, 이른바 의자에 걸치는 듯한 요령으로 앉게 돼 있었다. 물론 구두를 벗어야만 했지만, 테이블에 앉는 것보다 그 쪽이 편하고 좋았다. (강조는 인용자) (『화산도』 제 5 권, 2015, 112 쪽)

위의 두 인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2015 년도 판본에는 있지만 1988 년도 판본에는 없는 “일본의 전골풍을 도입한 냄비요리”와 “이로리(囲炉裏)” 등의 왜색 표현과 화식(和式) 문화를 대하는 이방근의 태도이다. 일본식 좌석이 테이블보다 편하다는 이방근의 발언은 이승만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반민특위가 전국민적 아젠다로 부상하던 해방 이후 정치적 상황에 견주어 봐도, 민중·민족주의가 공동체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식민지 과거 청산에 대한 요구가 드높았던 1980 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봐도 분명 문제적이다.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식당장면에서 정작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독립한 피식민지인’의 자기분열적 내면풍경이다. 생활 속 일본의 잔영이 식민지 지배의 흔적을 알면서도 익숙한 것에 무심코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는 이방근의 감각은 몸은 해방되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식민지배의 주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독립한 피식민지인’의 모순적인 내면을 보여주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자기분열중에 대한 고백과 성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그 자체로 강력한 혁명의 동기가 된다는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혁명은 자기 안의 모순을 극복하고 통합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나로 비약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당장면은 식민지 지배가 남긴 정신적 상흔을 지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숙명적으로 드리워진 내면의 갈등과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혁명으로서의 4·3은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방근이 '서북에 10 만원을 기부' 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실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방근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가산을 처분하여 게릴라와 서북에 각각 10 만 원씩을 후원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火山島』(1988)에는 게릴라에게 10 만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서북에 게도 10 만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1988]

이방근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당장은 무리지만 5월 중순에는 10만 원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나 그뒤의 일에 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 재산을 정리하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시간도 걸리는 일이어서, 전혀 망설임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께 밤에 양준오에게 그 얘기를 한 것도, 물론 끝막에서는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인생에 있어서의 위험한 모험 10년 20년이 아니라, 설령 1년 2년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의 여러 국면에 위기적으로 찾아오는 모험에 스스로 부딪치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이방근은 점심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찰실에 들러 진찰중인 고원식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화산도』 제 5권, 1988, 248-249 쪽)

[2015]

이방근은 단적으로, 지금 당장은 무리지만 5월 중순에는 1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뒷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고, 그저께 밤에 양준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 것도, 물론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일제로 그의 의견도 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과장되

게 말한다면, 인생에서의 위험한 모험, 10년, 20년이 아니라, 가령 1년, 2년이라 하더라도 인생을 살고 있는 생활의 국면에 위기처럼 찾아오는 모험에 스스로가 몸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0만원은 '서북' 과의 협상금에 맞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같은 금액이었다. 조만간 '서북' 에도 얼마인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보통에 금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돈이 많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될 것이고, 비록 아버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었다. 미친 짓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재산 처리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대응도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문제는 많다. 그러나 일은 문제의 유무 여하의 위에 있었다. (1988년판에서 생략된 부분 강조, 강조는 인용자)

이방근은 점심때가 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찰실에 얼굴을 내밀고 진찰중인 고원식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화산도』 제 5권, 2015, 253-254 쪽)

『火山島』(1988)에서 서북에게 10만 원을 후원하다는 내용이 생략된 까닭으로 그러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생략의 원인을 추측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략된 장면이 4·3의 의미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방근의 재산 처분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방근에게 재산은 안정된 생활 기반이만 한편으로 그로 하여금 현실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끔 하는 걸림돌이다. 이방근은 그러한 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현실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렇듯 재산처분은 이방근에게 있어 현실 참여와 혁명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처럼 혁명 탐색으로서의 재산처분이 문제인 상황에서 게릴라와 서북에 각각 10 만원씩 기부하는 것이 고려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화산도』에서 돈의 흐름은 현실에 대한 이방근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누구보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나서는 것에는 막상 소극적이었던 이방근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혁명을 도모한다. 그리하여 그는 조직논리가 아닌 개인의 실존적 동기로부터 작동하는 혁명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그것의 일환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하여 혁명의 가능성과 맞바꾸는 ‘탕진’의 사상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게릴라와 서북에게 각각 10 만원씩 기부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렇듯 ‘게릴라와 서북에게 각각 10 만원씩’이라는 현상 이면에는 혁명의 실패와 그에 대한 현실적 대안의 부재라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어쨌든 양쪽에 산술적 평 균을 맞추므로써 현실의 요구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모순적 욕망이 충돌하고 있다.

이방근은 현실참여에 대한 의무감과 그것을 외면하고 싶다는 회피의식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 가운데 자신만의 혁명의 길을 발견한다. 그것은 처분한 재산으로 한일호를 구입해 하산한 게릴라를 일본으로 도피시킨다는 파격적인 계획이다. 이는 부정적인 현실에 굴복하는 것과 (당) 조직의 권위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 중 그 어느 것도 아니다. 한편 그것은 (당)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반혁명’ 이지만 역사의 불의에 맞서는 한 인간의 실존적 투쟁이라는 측면에서는 ‘혁명’ 이다. 이처럼 서북에 10 만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전위적 혁명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변증법적 과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 『火山島』(1988)가 생략한 각각의 장면들은 ‘혁명’에 대한 사유를 보다 입체적으로 만든다. 이처럼 생략된 각각의 장면들은 그 존재감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다. 또한 이러한 생략은 『화산도』가 품은 혁명으로서의 함의를 빈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火山島』(1988)의 생략은 일면 혁명으로서의 4·3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4·3을 혁명으로 도드라지게 하려는 전략이 도리어 4·3을 왜소화한다. 이러한 이유로 『火山島』(1988)에서 혁명으로서 4·3의 진면목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 5. 혁명의 심화, ‘허무’에서 ‘보편’으로

이방근이 자살하는 『화산도』의 결말은 혁명으로서의 4·3에 대한 사유를 서사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

실에 착안하여 이 장에서는 소설의 결말이 어떠한 방식으로 혁명으로서의 4·3을 의미화 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화산도』는 주인공인 이방근의 자살로 끝을 맺는데 소설의 이러한 결말은 文藝春秋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될 당시 바뀐 것이다. 文藝春秋판 『火山島』(1997)를 저본으로 삼은 보고서관 『화산도』(2015) 또한 이방근이 자살하는 결말을 따르는데 이 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방근의 자살이라는 서사의 대단원은 『화산도』의 테마를 작가가 말한 “허무와 혁명—혁명에 의한 허무의 초극”이라는 사상적 주제로서 구체화하고, 나아가 실패한 혁명이라는 허무주의를 딛고 생성적 징후를 도모하는 혁명으로서의 4·3을 재사유할 수 있도록 하기에 중요하다.

이방근의 자살이 제기하는 복잡한 문제의식은 『화산도』의 서사가 촘촘하게 쌓아 온 대화적 상황으로부터 촉발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말미에서 이방근이 자살하는 대목은 『화산도』의 서사적 역량이 집중되어 폭발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산도』의 결말부분은 4·3과 혁명을 둘러싼 철학적 의미와 이 사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 고뇌가 ‘생성으로서의 혁명’으로 무르익는 지점이기도 하다.

오른쪽 산지 언덕으로부터 서서히 솟아 오른 사라봉 너머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바다다.

살육자들이 승리자로서 서울로 개선한 뒤, 폐허의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바람 속에 허무가 있는가. 섬을 뒤덮은 시체가 허무를 부정한다. 죽음의 폐허에 허

무는 없는 것이다. 아득한 고원의, 보다 저 멀리, 초여름의 햇볕에 반짝이는 부동의 바다가 보였다.

파란 허공에 총성이 울렸다. (『화산도』 제 12권, 2015, 370쪽)

결말부에 제시되는 ‘죽음의 폐허에 허무는 없다’는 메시지는 ‘허무에서 재생을 볼 수 있는가’라는 모순적인 질문을 촉발한다.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여 혁명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현실의 패배를 뛰어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역사에 대한 서사적인 측면에서의 혁명적 상상력이 새삼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화산도』의 마지막 장면을 분석한다.

특히 이방근의 자살과 관련된 여러 단상 중 살해와 자유 그리고 자살을 둘러싼 극한의 인식론적 전개가 돋보이는 ‘사문(私問)’을 둘러싼 관념적 고투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생성으로서의 혁명의 모습을 가늠해 본다.

왜 놈들을 죽일 수 없는가. 왜 계속 살해당하는데도 죽일 수 없는가. 무력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죽이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정당방위’라는 법률적 용어도 있지 않은가. 살생,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는 것은 살해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 이방근은 참으로 운이 좋아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자유롭기에, 살해를 당해도 좋다고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부자유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남승지여,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방자

하고 제멋대로라는 것이겠지.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래, 틀림없이 너무나 자유로워 타자를 침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역설적으로 살해를 당할 ‘자유’를 가져야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살해를 당하는 것이 자유라고 인식하는 위대한 정신과 감정이 필요하다. 가장 부자유한 인간이 있어서,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죽인다고 한다면, 난 살해를 당해도 좋다. 그게 순리에 맞다. 하지만 자유는 그게 아니다. 타자를 지배하지 않고, 자신 안에 지배할 필요가 없는,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자유의 힘을 가진다. 살인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알기 때문에 자살한다. 인간은 남을 죽이기 전에 적어도 동시에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살할 수 있는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은 남을 죽여 타자를 침해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이기 전에 스스로를 죽이는, 결국 자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산도』 제 12 권, 2015, 144 쪽)

이방근은 4·3이 파국으로 치닫는 혼란통에 4·28 회담을 결렬시킨 장본인이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유달현과 정세용을 사문하기로 결심한다. 이때까지 이방근은 “너무나 자유로워 타자를 침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역설적으로 살해를 당할 ‘자유’를 가져야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살해를 당하는 것이 자유라고 인식하는 위대한 정신과 감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살해와 자유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게 된 후에 이

방근은 살해와 자유의 연속성이 오직 관념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현실에서는 살해와 자유는 절대 같은 것일 수 없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운 정신은 죽이기 전에 자살한다’는 사상을 전개한다.

이처럼 사문에 대한 관념적 고투에서 출발하여 자유—자살로 귀결되는 이방근의 사상은 논리적인 완결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사상이다.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방근의 사상적 출발점인 사문이라는 행위에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저지른 과오를 단죄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문이라는 사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발상은 많은 논란을 내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근의 사문은 그것이 비록 시대적 요구를 대변하는 행위였다고 할지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문을 둘러싸고 촉발된 질문은 단일한 결론을 상정하지 않으며, 그러한 까닭에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대화와 해석의 열린 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듯 이방근의 자살로부터 제기된 질문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역사의 불의에 항거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나아가 역사적 책임에 관한 물음과 해답을 우리들 스스로 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역사의 주변인이 아닌 행위자이자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잘못된 역사에 대한 단죄로서 사문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도』의 결말에 대한 평가는 텍스트의 내부에서 그것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과

의 점점 속에서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화산도』의 결말은 혁명의 방법론으로서 보다 더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화산도』의 결말은 텍스트 내부의 문제로부터 끊임없이 현실의 지금으로 돌아와 혁명의 의미를 사유하게 하는 환류점(還流點)이라고 할 수 있다.

## 6. 나가며 : 대화로서의 『화산도』 읽기

지금 우리가 4·3을 ‘혁명’이라고 명명하고자 할 때 그것의 의미가 1948년 4·3 발발 당시, 그리고 1988년 『火山島』(1988)가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4·3은 대한민국의 여러 시대적 국면과 역사적 맥락들이 교차될 때마다 매번 그 의미를 갱신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4·3을 의미화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다성적 대화주의의 실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산도』에 나타난 4·3의 혁명적 순간은 서사의 안팎을 가로지르는 여러 층위의 크로노토프로부터 추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3에 대한 문학의 역할은 개개인으로써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로 환원할 수 없는 다종다기한 4·3의 기억과 계속해서 마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윤리나 정의의 측면에서 4·3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화적 상황이다.

대화적 상황 속에서 4·3을 둘러싼 무수한 사유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룬다. 저마다의 고유한 음색을 지닌 사유들이 한 대 어우

러져 혁명이라는 화음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우렁차고 풍성한 소리가 우리를 혁명의 중심으로 안내해 주리라 믿는다. 이러한 혁명의 생성적 측면을 한나 아렌트 식으로 표현하자면 “혁명 정신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정신일 뿐만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시작하는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혁명은 고정된 형태로 확정 지을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혁명은 일상적 가치와 질서가 전복되는 전위적 순간에 비일상으로서 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으로부터 창출되는 일회적이고 찰나적인 시공간을 우리 곁에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화산도』가 제시한 혁명의 이미지는 오늘날의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리와의 친연성이 높다. 이처럼 『화산도』는 4·3을 마주하여 공동체 성원들이 지녀야 하는 자세를 제시하는 텍스트이다.

역사의 이행기 정의는 혁명을 수사적으로 반복할 때가 아닌 현재를 의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혁명의 방향성을 모색할 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혁명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는 『화산도』가 열어놓은 비약의 순간에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앞으로의 지속적인 과제이며, 그랬을 때 혁명으로서의 4·3은 정형화된 역사를 박차고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대화로서 성큼 다가와 있다.

## 주

- (1) 김정희, 『재일한국인의 문학과 현실—김석범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7; 나카노 마코도, 『김석범(金石範)의 작가의식—화산도(火山島)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1; 이재봉, 「바보의 신화화—김석범 소설의 바보형 인물」, 『한국문학논총』 제 34 호, 한국문학회, 2003, 235-267 쪽; 임성택, 「김석범의 ‘4·3 소설’ 연구—작중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7; 김환기, 「김석범 · 『화산도』 · <제주 4·3>—『화산도』의 역사적/문화사적 의미」, 『일본학』 제 41 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1-18 쪽; 김학동, 『재일조선인 문학과 민족』, 국학자료원, 2009;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민족문학으로서의 일본어 글쓰기」, 『일본문화학보』 34,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363-386 쪽.
- (2)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의 접목 및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는 이재승의 착상을 따른다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 64 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05-148 쪽).
- (3)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공감적 정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2(1),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2, 123 쪽.
- (4) 이와 관련하여 김석범은 2017년 제 1 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을 위한 내한 당시 동국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다고, 이들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당신들이 촛불데모(혁명)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커다란 기여를 한 주역이라고” (권성우, 『비정성시를 만나던 푸르스름한 저녁』, 소명출판, 2019, 181 쪽) 이야기한다. 김석범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 작가 또한 최근 한국에서 전개된 일련의 정치·사회적 변화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4·3에 대한 인식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 이재승, 위의 논문, 2017, 108-109 쪽.
- (6) 미하일 바흐찐, 전승희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비, 1998, 260 쪽.
- (7) 같은책, 460-466 쪽 참조.
- (8) 같은책, 1998, 463 쪽.
- (9) 같은책, 1998, 463 쪽.
- (10) 같은책, 1998, 49-50 쪽 참조.
- (11) 이후 실천문학사판 『火山島』(1988)는 당시

표지제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火山島』(1988)로, 보고서판 『화산도』(2015)는 『화산도』(2015)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이와 별도로 『화산도』일반을 가리킬 경우에는 『화산도』로 표기한다. 이 밖에 일본에서의 『화산도』연재 및 출판 현황에 관해서는 『文學界』에서 연재한 「火山島」(1986-1996) 제 2 부에 대해서는 「화산도」(1986-1996)로, 文藝春秋판에서 1977년에 출간한 『火山島』(1977)에 대해서는 「文藝春秋판 『화산도』(1977)」로 각각 표기한다.

- (12) 두 텍스트를 함께 다룬 연구는 이나경의 『혼종성의 번역양상에 대한 일고찰—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중심으로』(이나경, 「혼종성의 번역양상에 대한 일고찰—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6, 일본언어문화학회, 2016, 137-154 쪽)가 있다. 여기서 그는 『화산도』의 두 한국어 번역 텍스트를 비교하고, 번역어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작가의 언어적 특질인 디아스포라적 양상을 고찰한다.
- (13) 김석범, 『火山島』제 1 권, 1988, 3 쪽.
- (14) 『火山島』가 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을 당시 김석범은 조선적이라는 이유로 입국금지를 당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인사를 전하는데, 거기서 그는 “5 월항쟁은 ‘4·3’에 대한 진상규명, 역사적 재조명에 박차를 가하는 역사의 흐름을 이루는 원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석범, 「『火山島』에 대하여」, 『실천문학』 제 11 호, 실천문학사, 1988, 45 쪽)라며 광주 민주화 항쟁과 4·3을 동일한 역사적 지평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
- (15) 이와 관련하여 김석범은 1998년 개최된 제주 4·3 제 50주년 기념 제 2 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그에 대한 참관소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동아시아 학술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3이 제주 지역성을 벗어나 4·3의 보편화·세계화로 접어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4·3을 제주에 한한 역사라고 보지 말고 세계적인 역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김석범, 「심포지엄 참관 소감」,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412 쪽) 이처럼 작가는 4·3이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자리매김하리라는 기대를 내



- 비치고, 나아가 세계사의 지평 속에서 억압에 저항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보편’적 ‘혁명’으로서 4·3의 성격을 강조한다.
- (16)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확정을 기념하는 대통령 담화에서 “이제 우리는 4·3 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 4·3 사건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 선인, 2003, 543-544 쪽) 라며 ‘평화’ 의지를 밝힌다.
- (17) 정홍섭, 「학살의 기억과 진정한 평화의 염원」, 『민족문화사연구』 Vol. 22, 민족문화사학회, 2003, 328-348 쪽; 하상일, 「김석범의 『火山島』와 제주 4·3」,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18, 38-53 쪽.
- (18) 헤테로토피아는 도저히 양립 불가능한 여러 공간을 실재하는 한 장소에 중첩함으로써 생겨나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현실의 고정화된 질서를 전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미셀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8, 18-24·47-57 쪽 참조).
- (19) 권력과 담론, 텍스트 등의 상관관계를 통해 역사를 언술하는 계보학에 대한 설명은 『미셀푸코와 현대성』 (오생근, 『미셀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306-310 쪽 참조.
- (20) 1988년에 내용상 『화산도』 1부에 해당하는 이호철·김석희 번역의 실천문학사판 『火山島』 (1988)가 한국에 소개되고, 그 사이에 일본에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文學界』에서 「화산도」 (1986-1996) 제 2부가 연재된다.
- (21) 이호철, 『소시민·살』, 문학과사상사, 1993.
- (22) 이호철이 고향인 원산에서 월남하기까지의 과정과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작가의 문제의식은 인터뷰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문학의오늘』 Vol.14 2015년 봄호, 은행나무, 2015) 44-85 쪽 참조.
- (23) 이호철의 분단체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은 “우선은 복잡한 소리 할 것 없어요. 자유, 자유, 자유, 자유가 이렇게도 좋을 수가 없어요. 옳다, 그리다, 어찌고, 저찌고, 그건 다 괜한 소리들이야, [중략] 뭐? 체제? 그따위 어려운 소리 그만둬요. 당장 양측 권력이라는 것 비켜나고, 남북이 확 열고 남과 북 누구라도 죄다 단 이틀만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와보라고 해보아요. 어떻게 되겠는가.” (방민호, 위의 잡지, 2015, 71 쪽) 라고 말하는 그의 강한 어조에 질게 반영되어 있다.
- (24) 김석범·김시종 저, 문경수 편,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138 쪽.
- (25) 『火山島』 (1988)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박미선, 「『火山島』와 4·3 그 안팎의 목소리 - 김석범론」, 『외국어문논총』,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23-37 쪽; 김학동, 「김석범의 『火山島』論 - 親日派와 共產主義者에 대한 認識을 中心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13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127-147 쪽; 서경석, 「개인적 윤리와 자의식의 극복문제」, 『실천문학』 12, 실천문학사, 1988, 452-465 쪽;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 4·3 문학, 그 안팎의 저항적 목소리」,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268-303 쪽 등이 있다.
- (26) 1999년 4·3 발생 5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한 『제주 4·3 연구』의 「4·3의 ‘정명’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간행사>는 시대적 과제로서 4·3의 정명(正名)이 요구되었던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라 하겠다 (역사문제연구소 외 편, 「간행사」,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27)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 - 제주 4·3 항쟁과 제일 한국인 문학』, 삼인, 2001, 176-177 쪽 참조.
- (28) 김석범, 『화산도』 제 1권, 2015, 5 쪽.
- (29)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혁명론』, 한길사, 2017, 361 쪽.
- (30) 이것은 『화산도』에서 발견한 혁명의 가능성이 자 동시에 한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 아렌트는 혁명이 변화와 전복의 원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혁명에 의해 출현한 자유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정치질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혁명 이후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리로서 인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정치질서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를 건설하고, 새로운 정부 형태를 고안하는 행위는 새로운 구조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중대한 임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험은 인간의 시작 능력에 대한 상쾌한 자각, 새로운 것의 탄생에 항상 수반되는 상쾌한 기분이다.”(한나 아렌트, 위의 책, 2017, 349 쪽)라고 말한다. 한나 아렌트의 이와 같은 고찰은 혁명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는데 참조점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석범, 김석희·이호철 역, 『화산도』 제 1-5 권, 실천문학사, 1988.
- 김석범, 김환기·김학동 역, 『화산도』 제 1-12 권, 보고서, 2015.
- 김석범, 「『화산도』에 대하여」, 『실천문학』 제 11 호, 실천문학사, 1988.
- 김석범, 「심포지엄 참관 소감」,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8, 411-414 쪽.
- 김석범·김시중 저, 문경수 편, 『왜 계속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 선인, 2003.

### 2. 학위논문

- 김정희, 『재일한국인의 문학과 현실—김석범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7.
- 나카노 마코도, 『김석범(金石範)의 작가의식—화산도(火山島)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1.
- 임성택, 『김석범의 ‘4·3 소설’ 연구—작중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7.

### 3. 학술논문 및 비평

- 김동윤, 「김석범 『화산도』에 구현된 4·3의 양상과 그 의미」, 『작은 섬 큰 문학』, 각, 2017, 49-79 쪽.
-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4·3 문학, 그 안팎

의 저항적 목소리」,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268-303 쪽.

김학동, 「金石範의 『火山島』論—親日派와 共產主義者에 대한 認識을 中心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Vol. 13, 2007, 127-147 쪽.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민족문학으로서의 일본어 글쓰기」, 『일본문화학보』 34,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363-386 쪽.

김환기, 「김석범·『화산도』·<제주 4·3>—『화산도』의 역사적/문화사적 의미」, 『일본학』 제 41 호, 2015,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18 쪽.

김환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의식과 ‘트랜스네이션」, 『횡단인문학』 창간호, 2018, 63-86 쪽.

박미선, 「『火山島』와 4·3 그 안팎의 목소리: 김석범론」, 『외대어문논총』 Vol.No. 10, 경희대학교 부설 비교문학연구소, 2001, 23-37 쪽.

서경석, 「개인적 윤리와 자의식의 극복문제」, 『실천문학』 Vol. 12, 실천문학사, 1988, 453-465 쪽.

이나경, 「혼중성의 번역양상에 대한 일고찰—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6, 일본언어문화학회, 2016, 137-154 쪽.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공감적 정의원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2(1),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2, 121-151 쪽.

이재봉, 「바보의 신화화—김석범 소설의 바보형 인물」, 『한국문학논총』 제 34 호, 한국문학회, 2003, 235-267 쪽.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 64 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05-148 쪽.

정홍섭, 「학살의 기억과 진정한 평화의 염원」, 『민족문학사연구』 Vol. 22, 민족문학사학회, 2003, 328-348 쪽.

하상일, 「김석범의 『火山島』와 제주 4·3」,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18, 38-53 쪽.

### 4. 단행본 및 잡지

권성우, 『비정성시를 만나던 푸르스름한 저녁』, 소명출판, 2019.

김학동, 『재일조선인 문학과 민족』, 국학자료원, 2009.

방민호, 「내가 만난 이호철」, 『문학의오늘』 Vol. 14 2015 봄, 2015.

- 오생근, 『미셀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 이호철, 『소시민·살』, 문학과사상사, 1993.
- 역사문제연구소 외 편,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나카무라 후쿠지, 표세만 외 역, 『김석범의 『화산도』 읽기—제주 43 항쟁과 재일한국인 문학』, 삼인, 2001.
- 미셀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8.
-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비, 1998.
-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혁명론』, 한길사, 2017.